

민주,尹신년사에 “하나마나한 얘기들…비전도 해답도 없어”

“국정 비전은 추상적, 위기 극복 해법은 모호 의문점들은 더욱 늘어”
“국민들은 실물경제 둔화로 엄중한 경제상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지적하며 “비전도 해답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신년기자회견을 패스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 반면에 의문점들은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수출에서 찾았다. 하지만 내세운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수출전략이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제 1교

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실물경제 둔화로 엄중한 경제상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와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을 밝혔다”고도 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전 정부와 야당인가. 노조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인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고 김정은 위원장이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이 나서서 ‘확전 각오’, ‘응징 보복’, ‘압도적 전쟁’이란 말로 국민을 전쟁 공포에 떠밀고 있을 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담도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과연 오늘, 아무런 담도 내놓지 못할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내일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있

최이슬기자

이재명, 현충원 참배…“위기 넘어 희망의 길 열겠다”

2023년 새해 맞아 현충탑·DJ묘역 찾아 참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일 2023년 새해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민생, 민주, 경제, 평화의 위기를 넘어 새로

운 희망과 도전의 길을 열겠다’고 적었다.

이날 현충원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대호 민주연구원장, 천준호 비서실장, 장경태·박찬대·임선숙 최고위원, 안호영 수석대변인, 양경숙·임오경·이동주·양이원영·이수진·김병주·강민정 의원, 김현정·한민수·황명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충탑을 향해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와 묵념을 한 민주당 지도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했다.

현장에는 최근 고문으로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있었고 이 대표는 박 전 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김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묘역을 빠져 나가기 전 권노갑 상임고문을 만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충원 참배 전인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뒤 낮 12시엔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리는 ‘2023년 김대중 재단 신년하례식’에도 참석한다.

오후 4시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민주 “남북지도자들, 한반도 화약고 만들려는 위험한 불장난 당장 멈춰라”

“尹 초강경 발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맞받아쳐”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첫날인 1일 북측의 연쇄 미사일 도발과 그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을 비판하며 “남북의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려는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맞받아치며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어제에 이어 새해 첫날인 오늘도 미사일 도발을 해왔다. 2023년 시작

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한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초대형 방사포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둔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주장했다. 또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상황’이라며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여론 일각에서는 비핵화선언과 9·19합의를 백지화하자고 한다. 북한을 압박하고 제어할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무책임한 주장에 한숨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깨려는 시도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